

안내도

미국 연방 대법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현직 연방 대법관

법정 강연 청취

법정 안에서 진행되는 30분 짜리 강연을 통해 대법원의 사법 기능과 청사에 깃든 역사를 자세히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표시된 강연 시작 시간 전에 1층 그레이트 홀에 줄을 서서 입장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

참고: 법정 강연 시간은 간혹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 진행 중에는 강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판 방청

대법원 회기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정문 광장에 줄을 서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방청 가능일을 확인하려면 G층에 위치한 공공정보국에 들러 문의하거나 www.supremecourt.gov에서 온라인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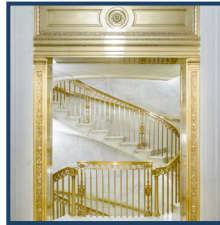
전시물 및 초상화

G층 곳곳에는 대법원의 역사를 보여 주는 전시물과 더불어 대법관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존 마셜 동상

G층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1801년부터 1835년까지 총 34년간 최장기 미국 대법원장을 지낸 존 마셜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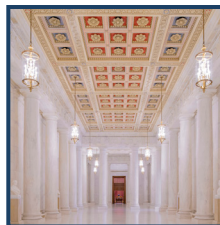
나선형 계단

G층 좌우 복도에 각각 설치된 경이로운 건축물인 나선형 계단은 대법원 청사를 설계한 캐스 길버트의 걸작입니다.



법정

1층 중앙에 위치한 이 법정에서 대법관들이 재판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판결을 발표합니다.



그레이트 홀

1층에 위치한 그레이트 홀은 웅장하고 장엄한 공간으로, 양쪽 벽면을 따라 역대 대법원장의 흉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



토머스
대법관



알리토
대법관



소토마요르
대법관



케이건
대법관



고서치
대법관



케버노
대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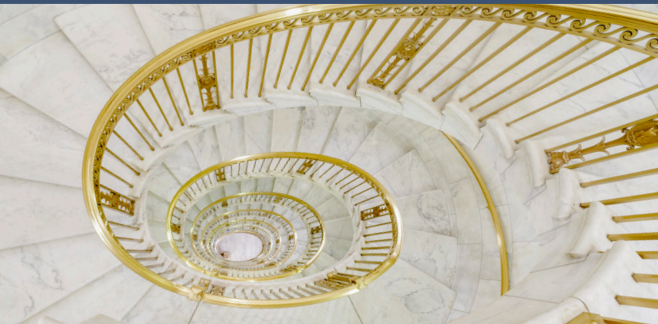


배럿
대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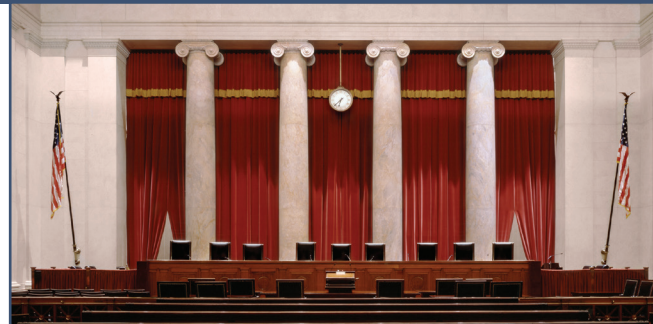


잭슨
대법관

미국 연방 대법원
1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543
www.supremecourt.gov



1935년에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 ‘정의의 전당’인 연방 대법원 청사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인 동시에 실제로 사법 활동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일반인 출입 공간과 업무 공간이 서로 인근에 있으므로 관람 시 정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익한 방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연방 공휴일은 제외)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각층에 있습니다. 식수대는 G층 화장실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및 계단

공용 엘리베이터 2대 및 계단이 각층에 있습니다.

존 마셜 동상

방문객 안내 데스크

대법원 청사 관련 정보 및 방문객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오전 7시 30분 ~ 오후 4시

기념품점

오전 9시 ~ 오후 4시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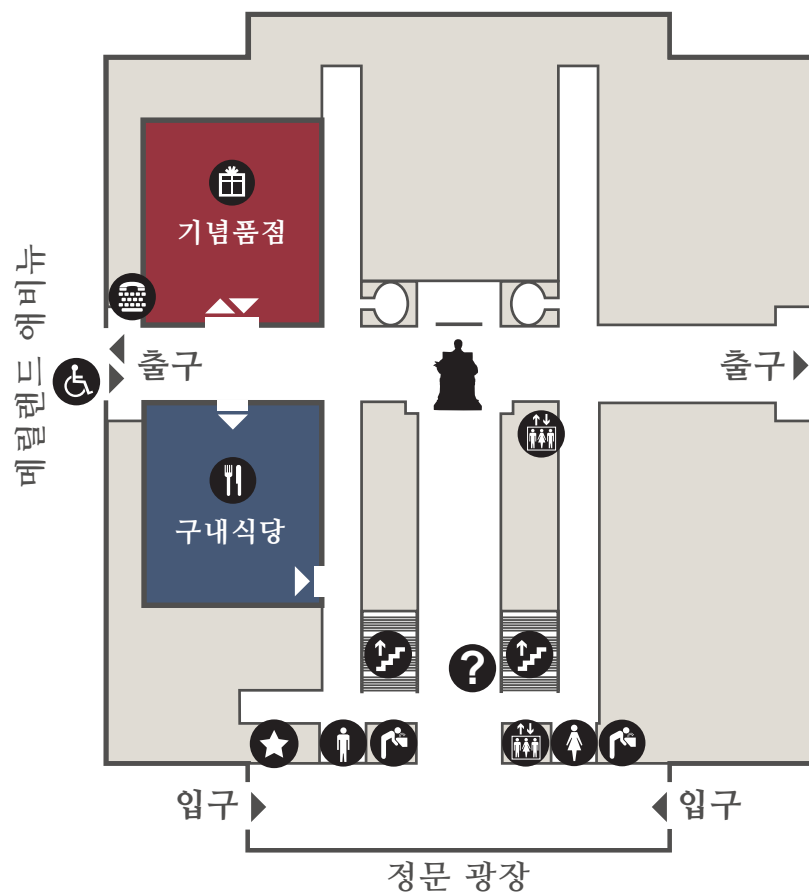
공공정보국

대법원 의견서, 사건 요약문, 대법원 운영 일정 및 일반 정보를 요청해 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메릴랜드 애비뉴 방면으로 장애인용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정 재판 및 법정 강연 청취 시 청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메릴랜드 애비뉴 방면 출구 오른쪽 코너에 청각장애이용(TTY)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G층



1층

